

■ 외원사 동향

現代重工業(株), 차세대 전력보호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

現代重工業(株)가 최근 전자식배전반을 이용한 ‘차세대 전력보호 감시제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실용화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11억원을 투입, 대형공장이나 빌딩의 受變電制御室에서 현장의 전력상태를 감시하고 전력선의 제어기능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전력보호시스템을 국산화, 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1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계측기능의 오차를 대폭 줄이고 유지보수의 단순화와 강력한 자기진단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신공항, 고속전철, 연구단지 등 각종 플랜트와 종합병원, 백화점, 호텔, 대형빌딩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커다란 수요가 기대된다.

LG產電(株), 경량형 예취기 개발

LG產電(株)(代表：李鍾秀)가 6개월간 2억원을 투자하여 경량형 예취기(모델명 KTG-240J)를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세계 최경량인 1.8kg의 엔진을 부착, 예취기 전체의 무게를 7.4kg으로 경량화시켜 도시인,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들도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든 제품이다. 특히 작업봉이 3단으로 분리되어 크기가 낚시가방보다 작기 때문에 승용차 트렁크 등에 넣고 다닐 수 있어 그동안 휴대상의 문제로 구입을 꺼려했던 도시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제

품이다.

또한 이번 제품은 배기량 24cc의 소형 기종으로서 국내 최초의 등걸이식 제품이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착용시 밀착성을 개선하여 등 부위의 압박감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스플라인(Spline) 방식을 채택하여 작업봉의 결합과 분리를 누구나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시 진동과 소음도 적어 작업자의 피로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極東電線工業(株), 한국중공업에 UTP케이블 공급

極東電線工業(株)(代表: 崔炳哲)가 최근 쌍용 정보통신이 수주한 한국중공업의 비동기전송방식(ATM) 근거리통신망(LAN) 구축 프로젝트에 국산 무편조(UTP)케이블 및 광케이블과 허벨사의 LAN시스템 접속자재 등을 일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극동전선공업은 국내 UTP케이블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AT & T사를 제치고 이번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산 제품으로는 최대물량의 UTP케이블을 공급하게 됐으며 광케이블 및 허벨사의 LAN시스템 접속자재도 모두 공급키로 했다.

榮豐産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榮豐産業(株)(代表: 白鍾萬)가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동사가 획득한 것은 설계/개발, 제조·설비 및アフ터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모델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고객 만족, 품질 만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체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고객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아울러 제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사는 '82년에 영풍물산으로 설립 GENERAL ELECTRIC CO.,의 독점 대리점계약 체결을 인연으로 시작하여 '93년에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전기기기 제조에 참여하였다.

LG電線(株), 무독성 난연 配電 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최근 지하매설용 전력케이블로는 처음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의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은 우리

나라 기간 配電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 22.9kV급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터널식 전력구나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플랜트, 정유공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전선이 지난 '96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은 폴리올레핀계 난연재료를 사용해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연기와 냄새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전선은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소(KERI)의 전기특성 및 안정성 시험은 이미 완료했다.

國際電機(株),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 EM마크 인증취득

國際電機(株)(代表: 金俊哲)가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OLE MOUNTED 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EM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변압기 제조업체로서 최초로 취득하여 국내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전기(주)는 국내 변압기 메이커로 발족한 이후 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가 EM 품질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21세기 품질경영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품질혁신 활동을 펼쳐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품질의 고유화와 일등화를 창출하여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EM 품질인증을 취득한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는 주위 온도 섭씨 40℃이하, 표고 1000m이하의 장소에서 22,900V 배전선로의 전압변동을 각상별로 자동조정하므로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게 되므로 전력의 지선별 및 집단부하 단위별로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를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절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의 전문회사인 CPS(COOPER POWER SYSTEMS)사와 1995. 7월에 기술도입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하여 국산화한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POSEC에 다량 납품하여 운전중에 있으며 금번 EM 품질인증 취득을 계기로 한층 진보된 지상형 GVR(가칭)를 개발하여 보다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利川電機(株),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

利川電機(株)(代表: 柳熙東)가 9월 2일부로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변경배경은 삼성그룹의 일원

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와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천전기의 또다른 의지 표현으로 주목되

고 있다.

이천전기는 1938년 설립된 이후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펌프, 수배전제어반, 수처리·환경시스템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중전기 업체이다.

이천전기는 금년을 정상탈환을 위한 재 도약의 시기로 하여 2005년 국내 최고 수준의 중전업체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디고 있는 중이다.

❖ 상호명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 **이천전기주식회사**



喜星電線(株), 정보통신분야 집중 육성

喜星電線(株)(代表: 裴恩出)가 정보통신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희성전선은 지난 9월 24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기존 전선사업과 전선연관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해 정보통신사업에 적극 진출키로 하는 등 제2의 창업을 위한 「도전 2005」 중장기 비전을 채택했다.

지난 57년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PVC케이블을 생산함으로써 전선분야에서 탄탄한 바탕을 다진 희성전선은 지난해 일본의 쇼와전선과 광통신케이블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광통신케이블

시장에 진입했다. 동사는 올해 광섬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전주공장에 1백억원을 투자, 내년까지 광섬유 제조설비를 설치해 자체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희성전선은 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선연관사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및 세계 일류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정보사회를 대비해 21세기에는 LAN 등 정보통신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株)泰進電氣, 자동화 설비 갖춘 제2공장 준공

(株)泰進電氣(代表: 李浩哲)는 최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에 최신식 자동생산설비를 갖춘 제2공장을 준공,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태진전기가 새로 준공한 제2공장은 총 19억원을 투입해 건평 1천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안에 중소기업체로서는 드물게 체머, 진공함침기, 토이스터이동기, 향온 향습시험기 등 각종 최신식 생산설

비등이 설치돼, 앞으로 신제품 개발은 물론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품질의 균일성 ▲생산성 향상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품질경영 정착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과감히 탈피, 앞

으로는 드넓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현재 CE마크를 획득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무정전전원공급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해 전 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星光電氣(株), ISO 9002 획득

星光電氣(株)(代表: 金泰公)는 최근 한국품질보증원(KQA)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고 제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성광전기는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품질보증체제 구축의 해」로 정하고 올초부터 전직원이 품질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ISO 9002 인증을 획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동사는 「이번에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 직원이 품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다져 제2도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ISO 인증서 획득에 자만하지 않고 더

욱 더 완벽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따라 성광전기는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UPS·CVCF·AVR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성광전기는 지난해 낙뢰 및 과전류로부터 각종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피뢰기 내장형 UPS」를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